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2022학년도「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함께 하고 싶은 나의 교수님」에세이 공모전

※ 선정된 에세이는 책자로 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수 있습니다.

제목: **세계사 속에 숨어있는 참맛**

- 정치 변혁의 세계사 수업 운영방식 -

정치 변혁의 세계사는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고대 로마 문명, 제1차 세계대전 등과 같이 유럽의 과거사 중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 또한 프랑스 자유주의의 발전, 이념 갈등과 같은 세계사의 정치 & 이념 발전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 주신다. 평가는 중간과 기말 대체 과제로 진행한다.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 대신 '향수의 기억 –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향사'를 읽고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비판하는 에세이를 작성했다. 기말고사 대체과제는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를 읽고 해석하여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리포트를 작성 한다. 이때 모든 과제는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나를 설레게 하는 역사 수업 -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역사 이야기를 따분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같이 역사 수업을 듣거나 누군가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보통 혼자서 유튜브에 있는 역사이야기를 들으며 즐기곤 했다.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지만 강당에서 직접 저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매 학기마다 나의 강의 시간표의 한 칸을 차지하는 역사수업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나는 본래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 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 하는 과제가 있는 교양강의를 하나 씩 들어 왔다. 22-2학기 수강신청 날에는 '정치 변혁의 세계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 전쟁사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욕심 -

첫 시간 이었다.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하셨는데 이번학기에 무엇을 강의 할지 목록으로 보여 주셨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전쟁사였다. 고대 로마의 정복전쟁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 내가 흥분할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셨다. 인간은 기원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와 다투어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왔다. 그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끼리의 다툼이든 거대한 집단끼리의 다툼이든.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다. '왜 인간은 서로 죽이려 드는가?' 교수님 또한 수업 중간에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다. "인간들은 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생각해보면 과거의 인간들은 침략과 약탈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단지 자기들 보다 약한 집단을 마주하면 그들을 부릴려고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들었다. 나는 이것이 비단 과거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 시대야 카메라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전부 알 수 있으므로 마음대로 활개를 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싸움과 빼앗음을 그만두려 하는 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정치 변혁의 세계사' 수업을 단지 교양 과목임에도 내가 좋아서 들었긴 했지만 A+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간절하였고 A+를 받았나 못 받았나에 굉장히 집착하였다. 다른 인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좋은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요?". 나는 인간이 지성을 가진 동물인 이상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야 욕심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전쟁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욕심은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영토를 계속 넓혀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다 결국 망하고 만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 녹아있는 것이 느껴진다.

- 인간은 이성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

프랑스 혁명을 배울 때 교수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여러분들은 이성을 앞세우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 하시나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당연히 자신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손을 들었다. 이번엔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억원이 주어지는데 이 돈은 이 세계의 누군가들의 지갑으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그러면 가지시겠습니까?" 분명 이성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면 그 돈은 가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박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흥분할 것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철학자나 법학자가 옳은 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식수준마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에게는 '이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꼭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교수님의 질문은 '인간은 왜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에 대한 답이 되었다. 인간들은 전쟁이 문명을 파멸로 이끈 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치지 못한다. 이 수업은 내가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모든 인간이 사실 대단한 존재는 아니 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시간이었다.

- 강인한 사람이 되어라 -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있다. 프랑스 혁명,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 수업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매한가? 왜 저런 말도 안되는 사상에 물들 수가 있지?'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현대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왜냐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하면 과거건 현대건, 사람의 행동을 감정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간과제에서 다룬 프랑스 혁명은 대중들이 광기에 휩싸이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부패한 왕족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며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불안한 심리 상태의 시민들을 급진주의자들이 선동하여 반공화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단두대로 보내어 처형하면서 점점 프랑스 사회가 광기에 휩싸여 버렸다.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공화정은 다시 몰락하게 되었다. 나치는 피폐해진 독일을 일으켜 세우며 대중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나치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전 국민을 나치에게 충성하도록 선동하고 세뇌시켰다.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의 말이 큰 힘이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심리가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더 잘 의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달콤한 목소리인 것 마냥 감정을 쥐고 흔든다면 그 사람은 점점 판단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즘 화제가 되는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만 최근에 탄생한 것이지 이미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사람들을 이용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교수님 또한 이 부분을 가리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 인간이 나약해지면 조종당하기 쉽다고. 그러니 강해져야 한다고.

-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는 관용 -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 이것은 기말고사 리포트의 주제가 되는 책이었다. 이 책은 이교도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칼라스를 기리며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혐오 하여 배척하는 인간군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혐오' 와 '관용'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행동을 존중해 주고 살아가면 양쪽 다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를 못한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득을 더 보기 위해 상대 집단의 이익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책을 다룰 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맨날 존중과 배려를 입에 달고 사는데 그렇게 행동 하긴 하는 걸까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겠다고 같은 회사 내 부서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것을 보면 종교갈등, 이념갈등, 인종갈등 같은 큰 범위부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성별갈등, 세대갈등, 각종 사소한 갈등 전부 관용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혐오의 끝은 양쪽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세계사로부터 알 수 있고 몰라도 충분이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끝을 알면서도 인간은 왜 혐오를 그칠 줄을 모를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배려와 존중을 내뱉는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인간은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야 성장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혐오가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 세계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

정치변혁의 세계사 수업은 많은 생각을 하게해주는 수업이다. 사실 이 수업이 후반부로 갈수록 무거운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인간의 부정적인 내면을 많이 생각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해준다고 본다. 현재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 세계사 속에도 똑같이 담겨져 있다. 이 수업은 그것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단지 과거에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알고자 한다면 유튜브를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깊은 사고를 하며 세계사를 배우면 과거 인간과 현재 인간이 근본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를 통해 역사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자기가 평소 고찰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면 정치변혁의 세계사 수업을 들어보라. 역사 속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훈수와 비판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역사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신랄한 비판과 의견을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레포트에 적어보면 좋은 성적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